

# 재·보선 D-100 광주 서구를 천정배 출마 최대 관심

### 신당 '국민모임' 강력 리브콜 새정치 탈당 출마엔 예측 불허 여야 예비후보 3명 등록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4·29 재·보선이 100일 앞으로(19일) 다가온 가운데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에 '을인'하고 있는 사이 정동영 전 고문이 합류한 '국민모임'의 신당설이 구체화되면서 4·29 서구를 보궐선거가 향후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인 새누리당도 야당의 텃밭인 서구를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분열될 경우 '제2의 이정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어 향후 서구를 보궐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치

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주 서구에는 새누리당 조준성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 새정치연합 김하중 전남대 교수·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장 사무처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찌감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택 전 국회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 전 의원과 함께 지역위원장 선거에 나선 정상용 전 의원과 김정현 당 수석부대변인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군 이외에 향후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이다.

신당이 창당될 경우 서구출에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서구를 신당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다. 천 장관은 "현재는 탈당, 신당참여 계획이 없다. 현재는 저 자신이 출마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안팎에서 신당 합류와 함께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정동영 전 고문이 광주를 찾아 천 전 장관을 만나는 등 '국민모임' 측에서 천 전 장관에게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점도 신당 합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천 장관이 최근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소의 부설 연구소 '호남의 희망'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토론회를 갖는 등 지역에서 포퓰를 넓혀가고 있는 점

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출의 최종 대진표는 '국민모임' 측 신당의 강력한 리브콜을 받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 만약 천 전 장관이 새정치연합을 박차고 나와 신당에 합류해 보선에 출마한다면 선거는 예측할 수 없는 판이 될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천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의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 장관이 위협성이 큰 1년짜리 보궐선거에 직접 나오지 않고 2016년 제20대 총선을 준비하는 대신 새로운 '젊은 피'를 후보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 장관은 주변인들에게 "호남에서든 새로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제3의 후보'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전기관·지역 상생 머리 맞대자”

### 최영호 남구청장, 오늘 혁신도시 방문

최영호(사진) 광주시 남구청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방문해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 청장은 19일 나주 혁신도시에 이정한 한국전력공사, 한국KD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방문한다. 최 청장은 이날 기관장들과 면담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 청장은 조만간 한전KPS와 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학연급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혁신도시에 입주한 9개 기관도 방문,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한전의 경우 분사 직원수만 1531명으로, 자회사 및 협력업체만 약 3,200여명에 달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면서 “혁신도시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남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남구와 이전 기관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한일 시도지사 교류회의’ 7년만에 재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지난 2008년부터 중단됐던 ‘한일 시도지사 교류회의’가 7년만에 재개된다. 18일 전남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한일 시도지사 교류회의가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방일 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는 전국지사 회장인 야마다 게이이치(山田啓二) 교도부 지사 등 7명이 참석한다. 한·일 양측은 회의 후 경제·문화·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필리핀 대학 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필리핀 마닐라 산토 토마스 대학을 방문한 가운데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제역 방역대 뚫리나

### 잇단 발생 천안 벗어나 공주서 의심 신고

충남도내서 한동안 주춤하던 구제역 신고가 18일 공주 돼지 농장에서 들어와 축산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그동안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했던 천안을 처음 벗어난 것이라서 축산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공주시 유구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 5마리의 유두에 수포가 생기고 잘 먹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도 가족위생연구소 방역관이 농장에 들어가 간이장비 검사를 한 결과 어미돼지 1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방역관은 분변 등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정밀 검사 결과는 19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공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3천6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위험지역인 3km 내에서는 2개 농장에서 돼지 3천805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시는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 등에 대한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살처분을 완료한 뒤 농장에서 구제역 임상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현장 통제조소를 운영하면서 차량과 인력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며 “발생지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소·돼지 등)가 두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임상 예찰과 주변지역 소독·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16일 천안 수신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천안에서만 7건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돼지 4834마리가 살처분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 전남도, 기업밀착형 PM제도 운영

### 수도권 기업 유치 주력 각종 인센티브 제공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기업 이전이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 보고 관련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이전 기업들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수치화해 정부에 알리고, 각종 인센티브 강화, 입지 선정에서 공평 건립까지 신속한 행정 절차 등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밀착 담당하는

PM(Project Manager)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정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기업 유치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강구중이다”

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 이전에 따른 장점이 사라지고, 이전해온 기업마저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전남도는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양주에서 영암군 삼호읍 대불자유무역지대로 이전한 (주)썬텍은 지난해 말 매출이 105억원에 상시고용 8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같은 해 이전한 (주)칸세라는 자동차 부품 중 엔진의 원료와 관련된 축

매 및 DPF를 생산해 지난해 말 매출이 4년 전의 2.5배인 70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역발전은 물론 기업 매출 신장에도 큰 보탬이 됐다. 전남도는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는 등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 정책실장은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울산지점 364-7557

